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5, 1부

열왕기하 15-16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그래서 우리는 15장부터 아사랴, 웃시야, 그리고 그의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52년의 통치 동안 웃시야가 언론에 노출될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단지 7절만 얻습니다.

이제 북방 왕인 여로보암 2세를 보면 여로보암이 왜 많은 것을 얻지 못했는지 우리는 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웃시야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것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좋아요, 손가락을 거기에 넣고 18장 3절을 펴세요.

이것은 히스기야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마샤에 비하면 웃시야는 잘했습니다.

응, 하지만 그건 표준이 아니야. 기준은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음, 예, 괜찮을지 궁금해합니다.

역대기에서 웃시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의 업적과 강점을 설명하고, 웃시야가 나병에 걸린 이유를 알려 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사장인 왕이 내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단하고 빠른 라인입니다. 내 생각에 그는 우리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 일부가 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보도 자료를 읽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왜 연대기가 킹스보다 그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가 상대적으로 선하고 강한 왕이었다면, 킹스가 왜 그를 디스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모른다.

좋아요. 글쎄, 내가 당신을 조금 밀어 보자. 왜 안 돼? 나는 왜 안 그러겠는가? 킹스는 좋은 왕과 나쁜 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은 왕은 무엇을 하는가? 그는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은 높은 곳을 없애십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 뭐야? 예, 일부 축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역사철학이다. 주님만을 예배하십시오.

다른 신이나 여호와와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님의 율법, 토라, 특히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구약성경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웃시야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로 돌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증거입니다. 당신을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대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갚을 수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저 내어주신다. 문제는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Chronicles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역대기는 이 사람이 성전과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에 충실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돌봤나요? 분명히 웃시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킹스의 경우, 그가 정말로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것은 암시이지 그런 식의 명확한 진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Keith Boyett 목사님이 오늘 예배당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일요일 기독교인들과 이 전염병이 그 모든 측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문제는, 특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일주일 내내 내 안에 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자, 당신의 차트에 나와 있듯이,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것은 웃시야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살해당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가 예후 왕조의 4대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아합을 멸하는데 신실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4세대를 주려고 합니다. 너희가 단과 브엘세바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지 아니하고 네 대를 주리라. 그리고 물론, 당신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고작 2년밖에 안 됐지만 예후가 즉위한 후 4대째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도표를 보시면 스가랴, 살롬, 므나헴의 유혈 사건은 실제로 앗수르가 아직 약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왜 이렇게 광란의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통치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긴 통치. 내가 가르쳐준 게 있나요? 그것은 큰 번영의 통치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크게 구별되는 통치였습니다.

자, 이 유혈 사태가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오늘밤 여러분은 모두 조용합니다. 사물, 경제와 관련이 있나요? 아주,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할 때 문제를 우리 손에 맡기고, 글썄, 그들은 자기 일을 했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내 것을 얻을 예정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에 관해 매우 모호합니다. 당신이 부유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잡았으므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부와 안락과 권력의 오랜 기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을 얻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얻었다.'

그것은 나에게 항상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남은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대사는 '글썄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입니다.

이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딘가의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것을 얻고 있습니까? 나는 내 것을 얻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후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네 자손은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다.

나는 그 진술이 성경의 진실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의 약속.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거기에 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살롬을 멸절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는 디르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에서 조금 남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려면 일종의 우회로를 거쳐야 합니다.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러나 디르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를 막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아이디어의 일부가 되는 거의 무심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얻을 것이고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르사를 해고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모두 찢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그 그림은 무의미한 잔인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배를 찢고 아기를 바위에 박살냅니다.

므나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단지 우연한 잔인함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흥미롭습니다. 18절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앗수르 왕 바울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풀은 디글랏 빌레셀이다. 그리고 므나헴은 그에게 은 천 달란트를 주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의 지지를 얻고 왕국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무슨 일 이죠? 디글랏빌레셀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므나헴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동맹을 사고 있어요.

정확히. 여기서도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Tiglath-Pileser를 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Tiglath-Pileser가 그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Tiglath-Pileser로 가는 길을 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정확히요. 그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안전은 적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죄는 당신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디글랏빌레셀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므나헴.

그리고 당신은 그의 우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매우 단기적인 투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당신의 보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내 안전을 위해 마침내 나의 적이 무엇인지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보험에 가입하면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갈 의향이 별로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문제는 결국 내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임무로 나는 요셉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모든 손실에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와.

그리고 저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잡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